

## 승리절 특별기고

# 백미장군(白眉將軍) 갈천지어(渴川之魚)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

백미장군(白眉將軍) 갈천지어(渴川之魚)는 격압유록 공을론에 나온다. 백미(白眉)는 흰 눈썹이라는 뜻으로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하는 말이다. 촉한(蜀漢) 때 마씨(馬氏) 다섯 형제가 모두 재주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썹 속에 흰 털이 난 마량(馬良)이 가장 뛰어났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백미장군은 적(마귀)을 죽이는데 가장 뛰어난 장군을 지칭한 말이다. 백(白)은 오행으로 금(金)이므로 백미장군은 금운 정도령을 의미한다.

###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초초로 생명과 일을 먹어야 한다

갈천지어(渴川之魚)는 물고기는 시냇물 속에서 살아가는데 시냇물이 마르면 그 물고기가 어찌 살아가겠는가? 그 물고기가 생명수를 바라는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그 물고기는 바로 정도령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인 이슬은혜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물(감로해인 생명과일)이 끊어지면 죽어 버릴 각오로 숨도 안 쉬고 하나님께 감로해인 생명과일을 내려 달라고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애원하였던 것이다. 왜 이렇게 감로해인을 내려주시기를 애원한 것인가? 감로해인은 마귀 죽이는 무기요 또한 천당에서 살아가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1980년 10월 15일은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백미장군 갈천지어 금운 정도령 속에 좌정한 날이다. 평생 마귀 죽이는 수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삼십일씩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신(이슬)이 함께한다 (이슬성신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 합성)

열네 번을 무릎을 꿇고 앉아 불면(不眠) 불휴(不休) 불음(不飲) 불식(不食)하면서 무극대도를 완성한 것이다. 이로써 무궁조화의 감로해인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뽕 잡는 것이 때리는 세상 말처럼 영생(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마귀를 죽이는 감로해인 생명과일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 속의 마귀를 죽이지 않으면 영생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천당(영생)은 구세주가 되어야 갈 수 있으며 구세주는 초초로 생명과일을 먹는다. 초초로 생명과일(감로해인)을 먹어야 천당에서 복락을 누리며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구습(舊習)을 다 떨쳐 버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초초로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마귀를 이기신 삼위일

체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이다.

### 예배 시간에는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집중 몰입해야

우선 예배 중이라도 초초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초초로라는 말은 한순간도 놓침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집중 몰입하여 무아(無我) 망아(忘我)의 경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로해인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면 영생과는 상관이 없으니 수도(修道)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 예배 중 좌우를 돌아본다든지 계속 꼼지락 거린다든지 몸을 두드린다든지 휴대폰을 만지는 등의 산만한 움직임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행동이기에

생명과일을 결코 먹을 수 없다. 이는 거름을 지고 장에 가는 격이라 악취가 나서 다른 사람이 장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금운 정도령이 열네 번을 무릎 꿇고 불면(不眠) 불휴(不休) 불음(不飲) 불식(不食)하며 기도할 때 나를 의식하고서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동(微動)도 없이 무아(無我) 망아(忘我)의 경지에서 기도했던 것이다. 정도령을 배우고 수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자세를 체득(體得)해야 할 것이다.

개과수도불입지옥(改過修道不入地獄)이라는 말이 있다. ‘허물을 고치며 수도하면 지옥까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허물을 고친다는 것은 자신속의 마귀와 투쟁을 해서 이겨나가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해야 감로해인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언제가는 주님이 오셔서 구원 영생시켜 주시겠지 하면서 막연히 세월만 기다린다면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음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이다.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리는 마귀와의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자기성찰(自己省察)이 없으면 자기혁신(自己革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귀인 나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해야 영생 구원이다. 이것이 승리절(勝利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일 것이다.

초초로 주님을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박명하 (010 3912 5953)  
myunghpark23@naver.com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41>  
“미륵부처님이 바로 구세주요, 이긴자이다”

미륵부처님이 바로 성경 상의 이긴자 구세주이며, 죽지 않는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주 하나님이다. 모든 중생들이 미륵부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성불하게 된다는 말은 이긴자 구세주가 된다는 말이다. 영생의 비결, 죽지 않는 비결, 하나님이 되는 비결, 부처가 되는 비결은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말인 것이다. 하나님

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고로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는 영생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희생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가 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 성경 읽는 방법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古典)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를 펴보면 하나님께서 흠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의 갈비를 뽑아 해와를 만들었다는 비과학적인 내용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만하다. 그런데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음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이다.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리는 마귀와의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자기성찰(自己省察)이 없으면 자기혁신(自己革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면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은 사실 성경 읽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성경 읽기가 재밌어진다. 예를 들면 성경의 서론 격인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서 선악과를 육적인 과일로 해석하면서 육적 과일에 포커스를 맞추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성경에 깊게 묻힌 참진리를 채굴할 수 없어 성경 읽는 재미를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선악과를 영적 과일로 해석하면 마치 분리된 부품을 조립하여 하나의 완성을 만들 듯이 각각의 성경 구절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짝을 맞추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하나로 엮이면서 풀리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선악과는 사과나 배와 같은 이 세상의 과일이 아니라 영적 과일이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므로 선악과는 사람을 죽게 하는 영적 과일이다. 그런데 아고브서 1장 15절에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쓰여 있으므로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것은 선악과가 죄의 다른 말이

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원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하였고, 죄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므로 죄의 씨앗은 욕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욕심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이 욕심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기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므로 나라는 의식이 곧 욕심이요 죄요 사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악과는 나라는 의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죄를 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흉은 바로 나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이 되는 선악과를 제거하면 죄가 없다가 되어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 만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선견지명이다. 점차 타락해 재난과 환난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영적 장님인 것은 바로 나라는 의식이 바보 멧덩구리 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영안(靈眼)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현재와 같은 무식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라는 의식을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면 그러한 어리석음과 무지(無智)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를 이긴 이긴자는 하나님이 되어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와 권능과 힘과 창조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출현한 이긴자 구세주 조희성님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며 지상천국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수봉 장로 / 본부재단

## (특집) 유럽 군주의 왕관에 백합 문장은 ‘단군’의 고대 히브리어다



빅토리아 여왕의 왕관과 보석으로 세팅된 엘리자베스 2세의 왕관에 백합 문장은 단군을 의미한다



한 코이누르 다이아몬드와 칼리닌 다이아몬드와 관련하여 인도 국민들은 코이누르를 돌려달라고 하고 남아공에서는 칼리닌 환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런데 왕관의 중앙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박혀 있고 그 양쪽에 꽃잎 세 장으로 이루어진 백합 문장(紋章)이 고대 히브리어로 ‘단’이라는 글자에서 유래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고조선 와당과 가야금관에 백합 장식

‘단’은 히브리어로 심판자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분처 라헬이 정자로 삼은 아들의 이름이 ‘단’이다. 야곱의 열두 아들의 자손들은 열두 부족을 이루었는데 ‘12지파’라고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천 2백 년 전에 ‘단’의 후손이 되는 단지파 백성들이 이스라엘 소라 땅에서 동으로 이주하여 한반도 대동강 유역에서 고조선을 건국



고대 히브리어 ‘단’의 이름이 새겨진 ‘단군의 독수리 수막새’다. 가야 연맹국 중 하나인 대가야(大

하였다. 고조선 수도에 천제단을 건립할 때, 애굽에서 벽돌과 기와를 굽던 경험을 살려 천제단의 담장을 벽돌로 쌓아 올리고 담장 위에는 기와장으로 장식하였다. 그 당시에 세계 최초로 원형 수막새(또는 와당)를 장안하여 기와장 끄트머리에 부착하였다.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며,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와당에 단지파의 시조 ‘단’의 이름을 고대 히브리어로 새겨넣었다. 【‘단군의 독수리 수막새’\_ 인터넷 구글 이미지 검색 참조】

한민족의 시조 단군의 원래 이름은 ‘단’이다. 우리 옛날 선조들이 조상의 이름을 ‘단’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단조롭고 너무 상스러우니가 임금(君)자를 붙여 드리지 해서 단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임금(君)은 형성자이다. 음(音)을 나타내는 尹(尹)은 손에 무언가 쥐는 모양에서 발전하여,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口(口)는 기도한다는 뜻으로 발전하였다. 곧, 군(君)은 하늘에 기도하며 세상을 이끄는 통치자이다. 군(君)이란 한자의 잘 안 알려진 뜻으로 임금의 아내, 조상이나 부모가 있다. 또한 상대의 성이나 이름 뒤에 붙여서 존칭어로 쓰이기도 한다.

고조선 이후 등장한 삼한(마한, 진한, 변한) 시대가 열렸는데, 나중에 가야 연맹이 생겨나 변한을 장악하였

### 영국 국왕의 왕관에 백합 문장이 고대 히브리어로 ‘단’이라는 글자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열 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지만, 결국 의인 열 명이 없어 두 도시는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승리제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구세주께서 친히 죄를 담당하여 의인을 키우는 곳이지, 세상에 속한 교회처럼 신자들을 많이 모아 세력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다. 영국에 런던승리제단 승사 두 명이 약 30년 동안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세주의 진리 복음을 전했지만, 유럽인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속적인 죄인의 삶에 빠져들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외면하였다.

그러하여 죄인들의 탐욕적인 생활이 가중되어 갈수록 인간의 입과 몸에서 악령이 쏟아져 나와 공기를 오염시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예베소서 2:2, 6:12)는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용이하게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영국 런던의 도시에 두 명의 의인 가운데 김승사는 현재 그대로 있고 박승사는 주님의 주장하심에 따라 올해 4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아마도 앞일을 훤히 내다보시는 구세주 하나님께서 7월에 일어난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지 영국 폭염(40도) 사태를 당하기 전에 안전한 한국으로 옮겼으리라 짐작한다.

영(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늘나라의 의인 한 사람이 영국을 떠남으로써 그림자 격의 여왕은 더 이상 기운을 받지 못하고 한국시간 9월 9일에 운명하였다.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자 여왕의 왕관에 박

加耶) 권역에서 출토된 가야금관은 4개의 초화형(草花形)의 세움장식(立飾)을 하고 있다. 사실 초화형(草花形)의 세움장식(立飾)은 한민족의 시조 단군이 의자에 앉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의자 위에 앉은 이스라엘의 모세 시대와 삼손 장수가 활동하던 사사(士師) 시대에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단송’이라는 문자를 표현한 것이다. 이와 똑같은 문양이 고조선 시대에 제작된 『단군의 독수리 수막새』에서 ‘단송’이라는 고대 히브리어(또는 올드네게브 문



가야금관에 보좌 위의 백합 장식은 ‘단군’을 의미한다

자)로 새겨져 있음을 찾아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서양의 왕실 백합 문장도 똑같은 ‘단송’이라는 이름의 문양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처럼 정확히 일치한다.

3면에 계속